

## 레위기

### 메시지 8

##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함

성경: 레 5:1-4, 6-8, 11, 15-16, 요일 1:7-9, 행 24:16, 시 51:2

- I. 속건제물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벧전 2:24, 사 53:5-6, 10-11, 비교 마 27:38, 눅 23:42-43.**
  - A. 신성한 빛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하는 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길이다 — **요 4:14-18.**
  - B.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생명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 생명의 교통 안에 계속 지켜지는 길이다 — **요일 1:2-3, 5-9, 행 24:16.**
  - C.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함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 **시 130:4, 눅 7:47-50.**
  - D.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세균들을 죽이고, 문제들을 없애며, 그 영의 하나를 유지해 준다 — **요 8:1-11, 요일 5:16, 롬 2:4하, 레 10:17, 갈 6:1.**
  
- II.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결함과 약함과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 **행 24:16, 시 51:2.**
  - A.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일들의 기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그 기록을 지워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 **요일 1:7, 9.**
  - B. 그렇게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자백한 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나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활기차고 담대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것이다 — **비교 민 21:16-18, 살전 2:2, 4.**
  
- III. 속건제물은 결국 속죄제물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두 방향에서의 죄의 문제, 곧 우리의 내적인 본성에 있는 죄와 우리의 외적인 행실에 있어서의 죄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5:6-8, 11-12, 요 1:29.**

- IV. 속건제물로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범죄의 근원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이며 죄를 짓는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레 5:7.
- V. 레위기 5장은 속건제물을 필요로 하는 네 가지 특별한 항목에 대해 말한다. 이 네 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함으로,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레 5:1-4.
- A.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달리,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거짓말하는 것을 다루는데, 거짓말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과 관련된다 — 레 5:1, 요 8:44.
- B. 영적인 죽음의 부정함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일이다 — 레 5:2.
- 우리가 죽음에서 분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레 11장, 행 10:9하-15, 27-29.
    -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2-3.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생물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 레 11:9.
    -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생명의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비교 레 11:13-19.
    - 날개가 있고 또 땅에서 뿔 수 있도록 발 뒤에 다리가 있는 곤충은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21-22.
  - 레위기 5장 2절에 나오는 동물들의 사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영적인 죽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죽음은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퍼질 수 있다. 들짐승은 거친 죽음을 상징하고, 집짐승은 부드러운 죽음을 상징하며, 길짐승은 간교한 죽음을 상징한다 — 롬 14:15, 20, 16:17.

## 레위기

### 메시지 8 (계속)

- a.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죽음은 다 부정하고 불결하며 더럽히는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 비교 고전 15:26.
  - b.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죽음은 죄보다도 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참조 레 11:31 각주 2).
  3. 우리는 죽음에서 분별되고 ‘항(抗)죽음제’인 생명으로 충만한 나실인들이 되어야 한다 — 민 6:6-8, 롬 8:6.
- C. 사람의 부정한 것은, 타고난 사람과 타고난 생명에서 흘러나온 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부정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5:3, 비교 마 15:17-20, 16:21-25.
- D.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말하며 우리의 의견을 성급하고도 부주의하게 분별없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 레 5:4, 비교 마 17:24-27, 요 7:3-8.
- VI. 레위기 5장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가 속죄제물을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들을 범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A. 이것은 우리가 죄들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죄가 없으며,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 B. 속죄제물로 바친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는 단지 예수님의 인성의 작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 VII. 배상을 할 때 그 값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배상하는 것은 속건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신성한 척도, 기준, 측량에 따라 물질적인 것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레 5:15-16, 비교 눅 19:8.**
- VIII.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마 1:6.**
- A.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야를 살해하고 그에게서 그의 아내를 빼앗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것이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8 (계속)

1.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 시 51:4.
  2.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 시 51:9.
  3.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 제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 시 51:17.
  4.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 시 51:18.
- B.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결혼’한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 솔로몬(‘평화로운’)이었다 — 삼하 7:12-14상, 대하 3:1.
1.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사람, 곧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로 산출된 사람에 의해 건축된다.
  2. 우리가 우리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결혼을 체험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된다.

## 다섯 종류의 용서

### I. 영원한 용서. 이것은 생명과 관계있다.

- A. 우리가 구원과 함께 얻는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다.
- B. 일단 우리가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며, 영원히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 눅 24:47, 롬 4:7-8, 시 103:12.
- C. 우리는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히 8:12, 행 10:43.

### II. 대표를 통한 용서. 이것은 교회와 관계있다.

- A. 주님은 성령을 그분의 교회에게 보내셨을 때, 교회에게 이 땅에서 그분의 대표가 될 것을 명하셨다. 이제 교회를 통해 용서를 얻는다 — 요 20:22-23.
- B. 대표를 통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갓 구원받았는데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에게 “당신은 오늘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III. 회복의 용서. 이것은 교통과 관계있다.

- A.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중단된다 — 행 24:16, 딤후 1:5, 딤후 1:3, 9.
- B. 아버지와 아들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생명의 관계는 결코 바뀔 수 없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교통 가운데서 용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7, 9, 2:1-2.
- C.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을 자백해야 한다 — 마 5:23-24.
- D.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 시 51:12, 잠 15:13상, 17:22상, 15:15하.
- E.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 두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달콤한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 — 요일 1:9.

### IV. 통치상의 용서. 이것은 징계와 관계있다.

- A. 이러한 종류의 용서는 하나님의 안배와 주권과 징계와 손길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은 그분의 행정이다.
- B. 하나님의 통치상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다스리시며 다루시는 방식과 관계있다 — 갈 6:7.
- C.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바꾸실지도 모른다.
- D.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삼하 12:13, 시 51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야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죽게 하셨으며,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삼하 12:7-15).

- E.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우는 것이다(벧전 5:5-7).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F. 모세는 므리바에서 반석을 친 후에(민 20:10-12, 24, 27:14),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졌다.
1.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냄으로써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시켰다.
  2.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출 33:11), 이 일 때문에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다.
  3.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다.
- G.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기를 배우며, 항상 용서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가볍게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유죄 판결하며,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엄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하실 것이다 — 마 6:15, 18:23-35.
1.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 시 2:11-12, 86:11, 고후 5:10-11, 사 11:2.
  2. 다른 이들이 곤경에 처할 때,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이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 비교 창 14:14-16.
  3.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했다. 오늘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과거에 그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약점들이다.
  4.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피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배우기 바란다 — 엡 4:32.

## V. 왕국의 용서. 이것은 행정과 관계있다.

- A.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진다면, 우리는 왕국 시대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 눅 6:38, 마 18:33-35.
- B. 우리가 비열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장래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 마 7:1-2.
- C.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홀히 여기고 또한 비열하거나 날카롭거나 엄격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럴 때 우리는 그날 하나님에게서 공홀을 얻을 수 있다 — 마 5:7, 비교 딤후 1:16, 18.